

## 삶과 죽음에 관한 고대근동문학과 잠언서 비교연구

이경실(대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 논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유명인들의 자살로 인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삶과 죽음에 관한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성경의 지혜문학 중 하나인 잠언서와 지역과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고대근동 문학과 비교를 통해 전자의 특성을 부각 시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본 논문은 고대근동지방에서 삶과 죽음이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절대적 의미를 넘어서 정신적 부분을 포함하는 질적인 영역까지 확대되어 총체적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개념들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세계관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를 통하여 삶과 죽음이 단순히 영원한 삶 혹은 무덤 너머의 삶으로 국한 시킬 수 있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육체적 건강과 장수, 물질적 풍요, 감정적 기쁨과 행복, 그리고 신의 보호를 기초로 한 안전등을 포함하는 실용적 세계관을 발견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주제어:** 삶, 죽음, 아멘 엠 오페트, 파타 호데프, 길가메쉬 서사시, 잠언

- I. 서론
- II.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혜문학에서의 삶과 죽음
- III. 잠언서의 삶
- IV. 잠언서의 죽음
- V. 결론

## I. 서론

최근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그가 기록했다고 세간에 알려진 유서에는 '삶과 죽음'이라는 용어가 나타난다.<sup>1)</sup> 아마 인류 최초의 문서로부터 현대의 문학들에 이르기까지 삶과 죽음만큼 관심을 끈 주제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분야와 비기독교분야 구분할 것 없이 생명의 기원과 그에 못지않게 생명의 삶을 이루어가는 법에 대한 방대한 저서를 남겼다. 성경의 지혜 문학인 잠언은 후자의 범주에 속하고 생명이 이르는 지혜로운 행위들과 어리석은 행위 뒤에 따라오는 죽음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잠언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부터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징벌을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화살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삶과 죽음이라는 단어는 종종 단순하게 신체적으로 살아있는 것 이상의 의미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잠언은 각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것들과 그 길에서 벗어날 것을 훈계하고 있다. 따라서 잠언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와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즉 삶에 대한 약속과 죽음에 대한 많은 경고를 다양한 측면에서 범위를 정해 분류함으로써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적인 신체와 관련이 되는 범위는 '절대적 의미'로, 비

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6498.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6498.html)

신체적인 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질적인 의미’라는 범위로 분류할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잠언이 속해있는 고대근동지방의 문학에서 나타나는 ‘삶과 죽음’의 의미와 그 단어들의 사용 용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 II.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혜문학에서의 삶과 죽음

잠언은 고대근동문학의 일부이므로 삶과 죽음에 대한 지역적 비교 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고대근동지방에서 삶과 죽음이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절대적 의미를 넘어서 정신적 부분을 포함하는 질적인 영역까지 확대되어 총체적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개념들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신학적 틀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삶 혹은 무덤 너머의 삶은 실용적인 관점으로 저술된 잠언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은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들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 1. 고대 이집트 지혜문학에 나타나는 삶과 죽음

#### (1) 고대 이집트 지혜문학에 나타나는 삶

이집트인들은 부지런히 행복과 번영의 삶을 추구했고 그들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면 무엇이든 귀중히 여겼다. 물리적 삶은 개인의 수명과 운명을 임의적이며 독단적으로 관장하는 신에게서 기원하고 있으며 또한 그 신에 의해 보존된다는 것을 믿었다.

이집트의 지혜문학은 무엇보다 사람들이 장수하고, 행복하며,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는 것에 주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기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세계는 편만한 우주적 질서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신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람은 행복과 번영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이러한 신적인 질서에 대항하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죽음의 파멸을 맞이할 것이다(Whybray, 1972: 7-8).

이러한 신적인 질서를 마아트(마아트(Maat))라 칭한다. 마아트는 자연, 정치, 종교 그리고 사회 등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므로, 이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행복한 삶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파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 ① 절대적 의미의 삶(Absolute Life)

이집트 문학에서 삶의 개념은 절대적이고 질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문서들에는 주로 물리적인 절대적 영역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장수는 신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중의 하나이다. 주전 2500년경 제 5왕조의 바로(Pharaoh)였던 이제지(Izezi)의 장관 파타 호테프(Ptah-Hotep)는 그의 책에서 그가 어떻게 장수의 복을 얻었는지 말하고 그의 독자들도 같은 복을 누리기를 기원하면서 저서를 끝맺고 있다.

그대들이 장수하기를 바라다네.  
주권자에게서 110년의 삶을 받고 나는 땅 위에서 많은 일을 했다네.  
여기 경건한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권자를 위해 선한 일을 했다네.  
그를 통해 나는 영광을 얻었으며 내 조상들 가운데 으뜸이 되었다네  
(Faucett, 1975: 12).

파타 호테프의 말 중에서 두 가지가 주목할 만하다. 첫째 그는 장수를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둘째 장수가 '주권자'라고 부르는 그의 신에 의해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육체적으로 생존하는 것은 우주의 신적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행복한 삶의 일부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장수와 더불어서 이집트인들은 신체적 건강을 올바른 삶의 보상으로 여겼다. 아비도스(Abydos)에 있는 람세스 2세의 비명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Ringgren, 1980: 326). "오 파라오여, 부디, 부디 건강하게 사시고 강건 하소서."

이와 같이 '건강하게 살다'와 '강건하다'의 병행문장에서 파라오가 단지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의 복 받기를 기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육체적으로 완전한 삶의 영역에는 신체적 건강과 장수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다.

## ② 질적인 의미의 삶(Qualitative Life)

이집트 문학에서 삶은 대개 절대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육체적 기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질적인 면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영역에서 삶은 일반적인 성공과 번영, 기쁨, 안전, 만족 등을 의미한다. 이런 예는 주전 6세기와 10세기 사이에 집필됐던, 솔로몬의 동시대인으로 여겨지는 아멘 엠 오페트(Amen-em-Opet)의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작품 1장에서 그는 청중들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훈계한다.

만약 그대가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대는 그것이 성공  
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내 말이 삶의 보물임을 알게 될 때, 땅 위에서 그대는 번  
영하리라(Pritchard, 1958: 237).

여기에서 삶은 직접적으로 그 삶이 수반하는 성공과 번영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물질적인 번영에만 국한될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보물이나 성공, 번영과 같은 단어들에 쓰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글의 문맥적 의미로 보아 그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 누릴 일반적인 성공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엠 오페트는 그의 지혜가 물질적인 면과 비물질적인 면 모두에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 번영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다. 아멘 엠 오페트의 가르침에서 삶의 또 다른 질적인 측면은 만족과 안전이다.

그대는 아톤(Aton)<sup>2)</sup>이 일어날 때 기도할지이다.

"내게 번영과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여라.

그는 그대가 이 삶을 누리는 동안 원하는 것을 주리라.

그리고 그대는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리라(Pritchard, 1958: 240).

이 기원의 기도는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이 삶을 누리는 동안 원하는 것'으로 표현된 물질적인 유익과 성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원의 대상들은 육체적인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문에 언급된 삶은 행복한 삶 혹은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질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또한 그는 아톤(Aton)을 부르는 사람은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리라'고 말함으로써 안전의 영역을 추가하고 있다. 즉 행복한 삶이란 갑작스러운 큰 재난이 틈탈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톤(Aton)이 그의 필요를 만족하게 채워줄 것으로 믿는 사람은 이 신이 그를 불행한 재난으로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기원문에서 그는 질적인 삶의 의미로서 만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가난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줌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

2)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아텐이라고도 한다. 태양 원반으로부터 많은 광선이 방사되어 그 끝이 손 모양을 한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왕과 왕비에게 생명의 심벌을 바치는 모습으로도 표현된다.

로 만족과 안전은 이집트 지혜문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질적인 측면의 두 가지 핵심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그대가 한 가난한 사람이 큰 빛을 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빛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두 부분은 탕감해주고 하나는 남  
 겨두라.  
 그대는 삶의 길이 이와 같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누워 단 잠을 자게 될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 좋은 소식을  
 접한 것과 같을 것이다(Pritchard, 1958: 241).

다른 사람의 빛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육체적 삶의 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이 모은 돈 때문에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빛을 탕감해 준 사람은 밤새 편안한 잠으로 만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날 그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때도 그는 여전히 만족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빛을 탕감해 준 사람은 근심에서 벗어나 만족한 삶의 길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집트 지혜문학에서 나타나는 삶에 대하여 한 가지 핵심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초기 문헌들에 있어서 삶의 의미는 육체적, 절대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집필한 잠언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삶이라는 단어가 보다 더 빈번히 비물질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질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2) 고대 이집트 지혜문학에 나타난 죽음

고대 이집트의 지혜문학에서 삶이라는 개념이 마아트(마아트(Maat))라는 초인적인 힘과 관련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음의 개념 역시 마찬가지다. 프랑크포트(Frankfort, 1948: 74-75)는 다음과 같이 적절히 말했다. "마아트(마아트(Maat))와 상반되는 거짓, 부정, 무질서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

저디주므로 그것은 삶을 불가능하게 한다.”

브레스티드(Breasted, 2002: 48) 역시 이집트 가장 초기의 종교적 발전기에 신이 “평온한 자에게 생명을, 죄지은 자에게 죽음을 주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 역시 마아트(Matt)와의 관련성이 나타난다.

### ① 절대적 죽음(Absolute Death)

이집트인들은 마아트(마아트(Maat))에 대항하는 것이 육체적 죽음을 불러온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존재 자체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진 않았다. 프랑크포트(Frankfort, 1948: 89)는 “그것은 생명의 중지이지 끝은 아니다 - 떨절이 아닌 사람의 인격에서 변화이다.” 이것은 세계는 분명히 정지해 있으며 불변하다고 믿는 그들의 견해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죽음이 영원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 따라서 사람은 땅에서 그의 육체적 삶이 끝날 때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옮겨가게 될 것이며, 이러한 변형은 그들의 정해진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고 이집트 지혜문학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은 삶과 갈등상태에 놓여있으나 인류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② 질적인 의미의 죽음(Qualitative Death)

파타 호테프(Ptah-Hotep)의 초기 문서들조차도 죽음과 그 유사어를 질적인 측면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질적인 용례의 두 가지 측면은 슬픔과 성공적인 관계의 결핍 상태이다. 이 의미들은 파타 호테프의 구절에서 명백히 찾아볼 수 있다.

악한 말로 경쟁자는 죽임을 당하나



경쟁자가 떠나자마자 그의 가슴은 그를 짓누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욕심을 떨리히는 사람은 만사가 형통하리라(Faucett, 1975: 7).

악한 일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은 질적인 의미에서 한번 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파타 호테프(Ptah-Hotep)는 다시 강조한다.

만약 그대가 행운을 바라고 악한 것을 피하기 희망한다면, 어떤 악한 행동과도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악한 욕망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 수 없으며, 고칠 수 없는 나쁜 병에 걸린 것과도 같을 것이다(Faucett, 1975: 7).

여기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삶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나쁜 병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크렌쇼(Crenshaw, 1981: 216)는 파타 호테프가 자신의 권고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존재적 역설 즉 '매일 살아있으면서 죽어가는'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끝맺고 있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현명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날 때 죽음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주전 2450경 고대 이집트에서 죽음이란 개념은 신의 질서인 마아트(마아트(Maat))에 불응하는 결과이며 절대적인 의미와 질적인 의미 두 가지 모두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메소포타미아 지혜문학에 나타난 삶과 죽음

세계가 마아트(Maat)에 의해 안전하게 다스려진다고 믿던 이집트인들과는 달리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세계를 불확실한 것으로 믿었다. 신들은 매 해마다 운명을 결정했고,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신들의 논의를 통해 정해진다(Frankfort, 1948: 60).

또 다른 저자의 말을 주목하자면 "바빌로니아인들에게 우주의 질서는 그다지 안전하고 믿을만한 것이 아니었다. 항상 통일되지 않는 다른 의지 속에 나타난 우주의 크고 강한 힘 가운데서 인간은 무의미해 보였다(Kennedy, 2001: 26)." 또한 신들 사이에는 통일성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인의 지혜는 이집트에서처럼 매일의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행동 지침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제사 의미로 더욱 발전시켰다. 이러한 제사 의식을 통해 각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에게 은총을 얻고 신은 그 대가로 신들의 모임에서 자신의 숭배자를 중재해 주는 것이다(Lambert, 1960: 7). 그러므로 메소포타미아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제사적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1) 메소포타미아 지혜문학에 나타난 삶

#### ① 절대적 의미의 삶(Absolute Life)

흔히 고대근동지방에서와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장수를 행복한 삶의 일부로 보았다. 그러나 이집트인들과는 반대로 이러한 삶은 세계적인 질서에 순응해서라기보다는 주로 자신이 모시는 신에게 부지런히 제사적, 의식적 순종을 함으로써 획득된다고 믿었다. 다음에 나타나는 그들의 고대 지혜문학의 일부를 통해 장수를 얻게 되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매일 그대의 신을 숭배하라.  
향을 피우고 제물과 성별식을 적절히 병행하라.  
그대의 신에게 자의로 헌물을 드려라.  
이것이 신들에게 적합할지니.  
기도와 탄원, 복종을 그에게 매일 드려라.  
그러면 그대는 그대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그대의 신과 풍성한 만남을 가질 것이다.  
그대의 지혜로 서판을 연구하라.

경외함은 은총을 낳을 것이다.  
 제물은 삶을 길게 할 것이다(madatim sanat balatim).  
 그리고 기도는 죄를 사할 것이다.  
 신들을 경외하는 자는 ...로부터 멸시를 받지 않을 것이고,  
 아누나키(Anunaki)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날이 길 것이다  
 (Lambert, 1960: 105).

여기에서 삶으로 번역 된 baltim 의 명사형 balatu는 종종 '많은 생명의 연수'를 뜻하다. 그러므로 madatim sanat balatim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의 길이 또는 수명을 가리킨다(Ringgren, 1980: 327). 또한 balatu 는 건강의 영역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건강 역시 삶의 절대적 의미의 용례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링그렌(Ringgren, 1980: 328)은 이 부분을 주목했다. "...'살다'는 '건강하고 원기왕성하다'의 동의어이다. 일반적인 서간체 인사는 다음과 같다. iu salmata lu baltata, '그대가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흔히 신에 대하여 쓰이는 형용사 muballit miti,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자' 즉 '병든 자의 치유자' 도 여기에 속한다." 그러므로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있어서 건강하게 장수하며 사는 것은 삶의 의미와 분리될 수 없으며, 이런 삶은 신에 대한 순종만이 가져다준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질적인 의미의 삶(Qualitative Life)

종종 삶을 지칭할 때는 기쁨과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인 일반적 번영을 의미한다. 링그렌(Ringgren, 1980: 329)은 다음을 발견했다. "신들은 삶 혹은 장수를 준다. 많은 경우에 있어 이 문맥의 구절은 행복 혹은 성공적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많은 기도문에서 장수와 번영에 대한 간구와 병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다. 그 중 한 기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신은 그에게 장수와 번영과 다산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Ringgren, 1973: 108)."

의로운 행실은 삶의 또 다른 질적인 측면이다. 이시타르(Ishtar)의 죽음을 탄식하면서 한 사람은 말한다. "나의 범죄, 나의 범죄, 나의 잘못, 나의 죄를 없애고, ...나의 발걸음을 굳게 인도하소서, 그래서 영웅처럼 나도 산 자들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 수 있도록(Ringgren, 1973: 117)." 이 기도문에서 '산 자들'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 혹은 그들은 '신들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임에 틀림없다. 그와 유사하게 바빌로니아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Nabonidus)는 그의 아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의로운 삶으로 만족하게 하소서(Ringgren, 1973: 110)."

죄의 삶의 반대는 의로운 삶에 대한 만족이다. 메소포타미아의 문학 역시 이집트 문학처럼 삶은 절대적이고 질적인 측면 모두 이해되고 있다.

## (2) 메소포타미아 지혜문학에 나타난 "죽음"

고대근동 지역의 이웃 국가였던 이집트처럼 메소포타미아는 육체적 죽음이 인간을 향한 자연스런 계획안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Jacobsen, 1976: 202).

죽음에 관한 메소포타미아 문학의 고전 자료는 길가메쉬(Gilgamesh) 서사시이다. 많은 역경 끝에 길가메쉬(Gilgamesh)는 죽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타고난 운명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재발견한다. 이 서사시는 한 가지 원리를 말해 준다. 신들이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 그들은 인간에게 죽음을 정해주었고 신들 자신에게는 생명을 정하였다(Ringgren, 1980: 329).

### ① 절대적 죽음(Absolute Death)

지혜로운 사람의 때 이른 죽음 외에 장수 끝에 오는 자연적인 죽음은 언급되지 않았다. 길가메쉬는 그의 친구 엔키두(Enkidu)가 때 아닌 죽음을 맞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그는 죽음에 집착하였다. 때 이른 죽음은 신의 보복이 구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

는 이러한 분노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그의 신 앞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할 것이다(Jacobsen, 1976: 202-204).

## ② 질적인 의미의 죽음(Qualitative Death)

죽음은 육체적 종말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감정적 우울, 의욕상실, 고통, 고뇌, 질병 등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다음 한 시의 발췌문에서 앞에 말한 세 가지들을 찾아볼 수 있다(Ringgren, 1973: 119).

어제는 살아있던 자가 오늘은 죽었다. **머리말**  
순식간에 그는 침울해지고, 갑자기 진멸되었다.

매 순간 즐거운 노래를 부르던 그가,  
한 순간에 죽은 자 앞에서 조문자와 같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아침과 저녁에 그들의 기분은 바뀐다. **감정적 우울**  
그들이 주릴 때에는 시체와 같은 모습일 것이나  
그들이 배부를 때에는 신들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의욕상실**  
형통할 때 그들은 하늘에 오르는 것 같이 말하지만,  
고통할 때 그들은 저승으로 내려가는 것에 불평할 것이다. **고통**

이 발췌문의 첫째 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있다. 머리말 다음에 위에서 구분한 세 부분에서 밑줄 친 단어들은 죽음을 연상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단어의 의미는 모두 현실에서의 일시적 고통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머리말에서 '죽었다'란 말은 질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노래 후반부에서 시인은 선언하고 있다. "그가 고뇌에서 나를 구하시고 Hubur(저승)의 강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마루дук(Marduk)이 나의 손을 잡고 나의 머리를 높이 들게 하였다(Ringgren, 1973: 119)." 여기에서 시인은 고뇌 가운데 있으면, 이미 죽은 자의 땅(저승)이 자신을 삼키고 죽음의 입구

로 데려갔다고 여기고 있다.

질병 역시 질적인 의미의 죽음에 해당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자’는 ‘아픈 자를 고치는 자’와 같은 것으로 비문에 새겨져 있다(Ringgren, 1980: 328).

이 본문들을 근거로 하여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죽음을 육체적인 절대적 의미와 질적인 의미 둘 다를 해석하였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 3. 평가

고대근동 지혜문학에서 그들에게 있어 지혜의 성취란 단순히 지혜의 가르침들에 순종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았다. 도리어 그것은 만물 창조와 자연계의 인간 역사를 지배하는 신을 신뢰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뜻한다. 그들이 사용하던 옛 지혜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종교적인 세계관과 조화를 이루어 갈 때 비로소 큰 의미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삶과 죽음이라는 단어(연관된 단어들도 마찬가지로)는 흔히 육체적인 절대적 의미로 이해되었지만 그러한 의미에 국한되지는 않았다. 고대 이집트의 한 현자는 행복한 삶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칠 때, 이미 삶 그 자체가 우주적 질서인 마아트(Maat)에 어떻게 순응한 것인지에 대한 보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삶은 절대적 의미에서 장수와 육체적 건강이라는 신적인 보상으로 주어지지만, 또한 질적인 의미에서 일반적인 성공, 번영, 기쁨, 안전, 만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는 말한다. 반대로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사람이 새로운 존재의 형태로 변화할 때 겪는 이 땅에서 삶의 중단으로 이해하였다. 질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사람에게 현실적 생존을 슬픔과 의욕상실의 상태로 몰아넣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삶을 자신이 모시는 신이 제사를 통해 잘 섬기는 사람에게 주는 신의 선물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또한 이 삶이라는 축

복은 절대적 의미로 육체적 장수와 건강으로, 질적인 의미로는 기쁨, 번영, 의로운 행동 등으로 나타난다고 여겼다.

따라서 II장은 삶과 죽음이 고대근동 문학에서 절대적 의미보다 더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해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평행선상에 있는 성경의 지혜문학인 잠언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키드너(Kidner, 1964: 53)는 말한다.

잠언의 삶에 대한 많은 약속과 죽음에 대한 많은 경고 중에, 일부는 아주 좁은 의미로만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옳은 행동과 그 행동에 따라오는 축복은 사람의 날을 길게 하고, 악은 반대로 짧게 한다는 가르침처럼 말이다...그러나 그 구절들과 같이 쓰이는 단어들을 보면 삶과 죽음은 질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조사는 솔로몬 시대에 삶과 죽음이 질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키드너(Kidner)의 연구에 힘을 실어준다. 또한 이 연구는 고대근동 지역에서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종교적 배경의 이해로 인하여, 다음 장에서 다룰 히브리 지혜문학서중 하나인 잠언서의 독특함을 강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III. 잠언서의 삶

II 장에서 고대근동 문학에 나타난 삶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이해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잠언에서 같은 면을 탐구하므로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이 이해한 풍성하고 충만한 삶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잠언의 저자(혹은 저자들)가 말하는 삶의 다양한

측면들과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풍성한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 1. 절대적 의미의 삶(Absolute Life)

육체적 존재는 충만한 삶에 명백한 필수적 요소이다. 맥켄지(McKenzie, 1965: 507)는 말한다.

삶이라는 개념은 ...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이스라엘인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육체를 입은 영혼으로 여기지 않고 생기를 품은 육체로 보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삶의 충만함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 육체의 활기와 힘, 그 행동과 기쁨을 느낄 줄 아는 능력들이다.

### (1) 건강

사람이 삶의 풍성함을 충분히 만끽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건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을 필수선결조건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풍성한 삶의 결과로 보았다. 이 하위 범주는 질적인 삶의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의미 자체는 단순한 생존에 가깝다는 사실 때문에 이 영역에 넣었다. 잠언 4:22은 이러한 개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삶(hayyim)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marpe)이 됨이니라."

잠언에서 건강은 지혜로운 자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것이지만(3:8; 16:24), 여기에서만은 그것 건강 또는 치유의 의미를 지닌 마르페(marpe)와 동의어 병치로 삶 또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이임(hayyim)이 언급되고 있다. 어떤 학자(Dell, 2000: 198)는 본 절의 건강을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으로 해석하나, 잠언 5:11에서 육체는 명백히 신체적 건강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본 절 역시 육체라는 단어와 연계되었으므로 신체적 건강을 의미한다.



잠언서에서 건강은 풍성한 삶의 일부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

## (2) 육체적 장수

이스라엘인들은 장수를 행복한 삶으로 여겼지만, 이마저도 단순한 생존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장수는 이 생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신체적으로 살아있기를 멈추면 스올(Sheol)<sup>3)</sup>에 들어가서 삶(hayyim)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체적 장수는 지속된 생존을 강조하는 질적인 삶의 성취를 의미한다. 이것은 잠언 3:1-2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삶(hayyim)의 날의 길이와 년 수를 그리고 평화(shalom)를 그들  
이 네게 더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삶(hayyim)이 날의 길이와 병치된 것으로 보아 본 절의 삶은 분명 장수를 의미하지만, 이 삶은 평화(shalom)를 포함하고 있다. 델(Dell, 2000: 190)은 이것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로 보았지만 문맥상 위험의 요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런 단순한 번역은 무리가 있다. 평화(shalom)와 그 파생어들은 킹 제임스 역(King James Version) 같은 영역성경에서 삼백 개 이상의 뜻으로 번역되고 있다.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상태’ 혹은 ‘행복(Johnson, 1964: 104-105)’ 그리고 ‘번영(Sutcliffe, 1946: 118)’으로 해석되어 왔다. 본 라드(Von Rad, 1964: 843-849)는 그 단어가 ‘신체적 건강 혹은 복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만족등을 의미하면서 물질적인 부분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코헨(Cohen, 1945: 13)은 가장 풍성한 개념을 주장한다. “히브리어 샬롬(shalom)은 존재를 완전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모든 요인들인 ‘온전함

3) 밑바닥이 없는 곳,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또는 죽음, 지옥을 의미한다.

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단어이다. 건강, 번영 그리고 행복한 가정생활..”

위에 열거한 특징들로 가득 찬 긴 생애는 지혜로운 계명을 지킨 결과로 얻는 풍요로운 삶의 축복의 표시이다.

## 2. 질적인 의미의 삶(Qualitative Life)

장수와 건강은 잠언에서 말하는 삶의 절대적 개념의 두 가지 측면이지만, 다양한 상대적인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다. 존슨(Johnson, 1964: 103-104)은 이 주제를 처음으로 거론했다.

대부분의 경우 ... 삶의 개념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삶의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정열적이고 방대함을 암시하는 남성 복수형 하이임(hayyim)으로 표현되었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의 개인적 생존을 가리키는 단순한 의미로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의 행복을 지칭하는 이상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데, 보통은 건강과 물질적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었다 ...

다시 말하지만 이 범주는 절대적인 범주를 함축하고 있지만, 충만한 삶의 특성과 수준에 강조를 두고 있다.

### (1) 심리적·감정적인 의미

이스라엘인들은 행복한 삶을 두려움이 없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상태로 보았다. 안전, 즉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는 잠언 19:23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이 삶은 신적인 보호를 확신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삶(hayyim)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는 밥을 만족히 지낼 것이며(yalin)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의 내용에 중요한 것은 밑줄 친 동사 야린(yalin)이다. 본 동사는 지속적인 거주가 아닌 장소와 관계없이 일시적인

숙박이나 하룻밤을 보내는 것에 사용된다. 그럼에도 안전과 만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은 사람에게 '재앙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데서 오는 안전인 것이다. 이러한 확신은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또한 잠언 14:30에 따르면 사람의 심리적인 영역은 그의 인격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심리적 건강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인격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육신과 '뼈'는 신체 혹은 사람의 전체 인격으로 여겨져 왔으므로 둘 다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 언급하는 뼈의 썩음(reqab asamot) 역시 인격 전체 즉, 육체적이고 비물질적인 모든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상반절의 육신도 인격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 이와 같이 심리적인 영역에서의 건강은 인간 존재 전체의 생명력을 가리킨다. 비록 히브리인들의 총체적인 개념은 그것을 육체적 영역과 연관 지어 생각하지만, 그 강조점은 심리적인 영역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리적/감정적인 수준의 삶(hayyim)은 안전, 근심 걱정으로부터의 해방, 행복 혹은 기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

## (2) 도덕적 의미

잠언에 나타나는 풍부한 삶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도덕적인 영역일 것이다. 머헤드(Muirhead, 1998: 13)는 고대 히브리인들은 "삶과 죽음에 관해 도덕적으로 매우 엄격하고 폐쇄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한다. 삶(hayyim)의 이러한 질적인 측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실제 행동이나 생활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그 도덕적인 행동들이 이후에도 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축복을 가져오고, 부도덕한 행동들은 의로움을 가리는 저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 사상은 잠언 16:22에 나타나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

라." 이러한 점에서 잠언은 불의가 그 대가로 더 큰 죄를 불러온다는 로마서 1:18-32과 상응한다. 그러나 진정한 명철(sekel)은 만족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sup>4)</sup>을 의미했고 이는 도덕적 행동(hayyim)의 원천이 된다.

미련함의 반대적 의미로 의로움을 알고 행하는 것은 도덕적인 삶으로 인도한다. 잠언 6:23은 동의어 병치는 같은 뜻을 분명히 담고 있다.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니, 훈계의 책망은 삶(hayyim)의 길이다." 코헨(Cohen, 1945: 36)은 "훈계의 책망은 올바른 삶의 길의 지침으로, 지혜로운 자를 미련한 행동으로부터 지켜주는 경고이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도덕적인 길을 보여주는 것을 묘사하는 등불과 빛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잠언 13:14과 14:27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은 도덕적인 삶(hayyim)의 원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 두 구절 모두에서 이 원천은 '죽음의 울무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다. 구약에서 죽음은 가장 단순한 의미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이며, 울무는 저주로 이끄는 것들이다. 잠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음녀, 강도, 그리고 사람을 죄짓게 하는 상황 등으로 확장하여 포함하고 있다. '삶의 샘'으로서, 지혜로운 가르침과 여호와의 순종하는 것은 이러한 울무가 없는 삶(hayyim)을 불러온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사는 사람은 잠언 15:31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구분된다. 잠언 21:21에서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도덕적 삶을 보장받고 있다. "의로움(sedaqah)과 친절함(hased)을 구하는 자(rodef)는, 삶(hayyim)과 의로움(sedaqah), 명예(kabod)를 발견한다."

높은 도덕적 기준(sedaqah)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려는(hased), 즉 그런 마음을 얻고자 마음먹는 사람(rodef)은 반드시 풍성한 삶을 발견할

4) sekel은 통찰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sakel에서 유래했지만,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식과 행동이 결부된 것에 강조를 두고 있다.

것이다. 첫 번째 행에서 삶(hayim)은 의로움(sedaqah)과 같은 의미이다. 두 번째 행에서는 의로움(sedaqah)과 사람의 가치(kabod)"가 같은 뜻이다. 분명 잠언은 하임(삶)을 도덕적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의도했던 것이다.

도덕적인 영역의 풍성한 삶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 영역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삶은 잠언 8:35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동등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rason)을 얻을 것임이니라."

거들스톤(Girdlestone, 2006: 69)은 은총(rason)에 대해 말하였다. "그것은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 명사와 동사 둘 다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혹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방식과 또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그와의 교제로 부르실 때 주시는 기쁨은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Girdlestone, 2006: 140)."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축복을 맛보게 된다. 이것은 잠언에 나타나는 질적인 의미의 삶의 개념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3) 물질적인 의미

구약은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잠언서에 관련된 최근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번영과 풍족한 부와 이익이라는 개념은 잠언에서 널리 나타난다. 적어도 18개의 장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다(McDonald, 2004: 12 )." 삶의 개념에서, 물질적 축복은 누릴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사용되어야 한다. 누림과 즐거움은 잠언 22:4에 나타난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보상은 재물과 명예와 삶이니라."

재물은 여기서 분명하게 물질적인 번영을 의미하지만, 명예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코헨(Cohen, 1945: 17)은 "명예가 재물과 결부

될 때 히브리어는 항상 사치스러움과 화려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양쪽 주장 모두 삶은 풍족한 물질적 소유를 누리고 또 그것을 만족하는 데서 오는 충만함을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잠언에서 삶(hayyim)은 단순한 육체적 존재 이상을 묘사하는 즉, 기쁨과 안전의 누림, 도덕적 행위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인간의 삶을 즐겁게 하는 물질적 소유의 풍성함을 포함하는 질적인 방식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평가

잠언서의 삶은 여호와가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즉 다양한 행동들과 태도 그리고 가치들에 있어서 지혜의 길이 어리석음의 길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것은 모든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삶은 절대적 의미에서 건강과 육체적 장수의 축복으로, 질적인 의미에서 여호와와의 보호를 바탕으로 한 기쁨과 안전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의롭게 살면서 물질적 번성의 이점을 누리는 법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단순한 의미에서의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 삶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조망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가를 언급해주고 있다.

### IV. 잠언서의 죽음

일반적으로 죽음이란 노화의 과정을 거쳐 육체적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서, 원치 않는 운명이 아닌 인간의 삶에 자연스럽고 평범한 보통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구약은 “죽음”을 그렇게 정의하지는 않는다. 베일리

(Bailey, 1979: 52)는 구약에서 이 부분을 발견했다."죽음이라고 말할 때 그 대상은 주로 충만한 삶에 못 미치는 특성들이나 상황들 즉, 질병, 소외, 박해, 의심과 같은 생물학적 죽음 등이다.

마찬가지로 잠언에서도 노년의 자연적인 죽음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지혜롭지 못한 자의 때 이른 불행한 죽음을 나타낸다. 잠언에 나타나는 죽음은 최대한으로 언어적 의미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폰 라트(von Rad, 1972: 304)는 말한다.

이스라엘인들은 현대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접했다. 인간은 결국에는 죽는다는 단순한 사실 이상으로, 이스라엘인들은 삶의 영역에 갑작스럽게 침입한 죽음에 직면해야 했다. 죽음은 삶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시편에서 탄식한 것처럼, 질병과 투옥 또한 다양한 삶의 다양한 장애 요소 역시 이미 죽음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때, 그들은 궁극적인 죽음에 관해서 크게 염려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죽음이 '삶의 충만한 향유에 못 미치는 모든 상태(Bailey, 1971: 23)'로 정의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궁극적인 죽음에 비해 질적인 형태의 죽음(Bailey, 1971: 41)"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면, 잠언의 가르침도 그에 따르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 혹은 그와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한 부분에서 문맥은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절들에서 나타나는 죽음이 총체적 현상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삶은 죽음의 모든 형태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경고하는 죽음이 가리키는 의미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 1. 절대적 의미의 죽음(Absolute Death)

잠언이 육체적 삶의 끝을 언급할 때는 보통 생존의 길에서 줄어든, 때 이른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의 유일한 예외는 잠언 30:7에서 아굴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이다. 이 구절에서 병차구문은 그 의미를 수식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은 자신이 지상에 사는 동안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궁핍한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그의 죽음은 보통의 자연적인 생물학적 단절을 말한다.

아굴의 기도를 제외한 잠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행실로 장수의 축복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몇몇 경고의 구절에서 때 이른 죽음이라는 개념이 명백히 드러난다. 이들 구절 모두는 잠언 19:16의 영역에 속한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삶을 누리는 능력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혜로운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삶의 방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때 이른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것은 의로운 사람이 삶의 길로 가는 반면 악인의 끝은 죽음이라는 즉, 구약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의 초석이 된다. 죽음이 주위를 잠식할 때조차도 의가 그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다. 따라서 죽음의 저주를 피하고 살아갈 능력을 가지며,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잠재력을 지키기 위해서, 잠언의 이 구절은 때 이른 죽음을 들어 경고하고 있다. 이 죽음에 대한 경고에 대처를 이루는 구절은 잠언 16:17b이다. "그는 그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잠언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살아가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결과는 줄어들 수명이라고 한다.

잠언 16:14에서처럼 사형 판결 역시 때 이른 죽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통치자를 그렇게 화나게 했을 행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어진 바가 없으나, 왕이 그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하



다. 와이브레이(Whybray, 1972: 95)는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왕이 법 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관행적으로 생사의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는 나아가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등의 정치적인 암살(열왕기상 2:25, 29-34, 46)을 이러한 죽음의 사신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왕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그 나라의 정의를 지키는 것이므로 이 경고는 사형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왕의 통치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통치를 바꾸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왕의 분노의 이유가 무엇이었던 지혜로운 사람은 그를 화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죽음은 지혜로운 사람이 의롭게 행하는데 자극제가 되며,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잠언에서의 육체적인 의미의 절대적 죽음은 때 아닌 불행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보통의 수명 끝에 맞는 죽음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죽음과 사망을 언급한 많은 구절 중에서도 소수만이 육체적 죽음의 영역에 속해있다. 키드너(Kidner, 1964: 95) 역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묘하게도, 이 모든 구절들 중 죽음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 2. 질적인 의미의 죽음(Qualitative Death)

육체적 종말은 생존의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베일리(Bailey, 1979: 41)는 그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육체적 죽음은 생명력의 약화로 간주될 수 있다. 심리학적, 사회적, 종교적 죽음(절망, 소외, 그리고 시편 기자들의 의심)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생명력과 그 가능성에 대한 부족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어떤 학자는 이 가능성의 부족을 '생명이 전혀 없음(Bultmann, 1964: 850)'으로 정의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충만한 삶의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는 것은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며(Pederson, 1954: 466-70), "모든 삶(생명)의 취약성도 죽음의 한 형태

이다(Johnson, 1964: 95).”라고 했다. 그러므로 잠언은 질적인 의미의 죽음도 경험하지 않도록 혼계하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의미의 죽음이 결코 육체적 죽음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모든 죽음의 형태는 항상 궁극적인 종말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따라서 가끔 그 구별이 아주 모호할 때가 있다.

### (1) 곤경

질적인 의미의 죽음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형태는 아마도 환란 혹은 곤경에 휩싸였을 때일 것이며, 이러한 용례는 잠언에서 자주 등장한다. 잠언 두 구절(11:4; 14:32)에서 악인의 모든 불의의 재물이 무익한데 반해, 의로움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논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다음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의로움은 죽음에서 구원하리라.

본문에 나타나는 육체적 죽음은 진노의 일부로서 독립적 개념이 아니라 이미 존재해있는 환란의 절정으로서 사용되었다. 환란이나 죽음의 위협은 그 자체가 죽음의 한 형태로 쓰이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sup>5)</sup> 진노의 날의 환란도 아마 같은 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진노의 날'이 불신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잠언에서는 사람에게 이런 진노를 나타내는 것은 항상 망령되거나 교만한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잠언 14:35; 21:24; 22:8). 이러한 진노의 궁극적인 결과는 육체적 죽음이겠지만, 현재적 형태로 보면 최후의 종말 훨씬 이전에 사람을 죽음의 영역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잠언 11:4은 사람이 적에게 둘러싸여있을 때 재물을 주어서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살 수는 없

5) 시편 18:5; 88:5-6 참고.

지만, 의의 비유<sup>6)</sup>인 의로운 삶은 죽음으로부터 피해 달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뜻이다.

잠언 14:32에서도 죽음은 환란이라는 형태로 확실히 드러나 있다.

환란의 때에 악인은 엎드려질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죽음에서도 피난처를 찾느니라.

두 번째 행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노년의 죽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잠언에서는 오직 악인만이 때 이른 종말을 맞이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는 이 구절의 대조병치법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악인의 최후는 환란이지만, 의롭게 사는 사람은 같은 고난이 자신의 삶을 위협해도 여호와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 환란이란 피해야 할 죽음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들로 보아, 잠언에서의 죽음은 육체적 종말을 의미할 뿐 아니라 곤경과 환란의 위협등도 그와 같은 형태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도덕적 의미

의의 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진정한 삶의 한 측면이었듯이 그 반대로 죽음의 한 측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죽음의 형태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구절이 잠언 5:23이다. "그는 가르침이 부족하여 죽을 것이며, 어리석음의 한 가운데서, 그는 타락할 것이다." 잠언 10:17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을 타락의 길로 이끄는 것은 생명의 길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5:23의 동의대구법에서는 죽음과 타락하는 것을 같이 취급하고 있어서

6) 여호와와는 "의로운 자(잠언 2:7b)와 그의 길을 따르는 자를 보호하는 방패(잠언 2:8b)"로 여겨진다. 그래서 의로움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의 진정한 원천인 여호와와의 보호를 불러오는 근거이다.

키드너(Kidner, 1964: 56)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두 구절은 모두 타락한 사람은 진정한 삶을 놓치고 있으며, 이것은 죽음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음녀나 간음하는 사람과의 성적인 죄도 똑같이 소멸하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내려가고(잠 2:18) 그녀의 길은 스올(Sheol)로 이어진다(잠 5:5; 7:27). 어리석은 사람이 음녀의 집에 들어갈 때, 그들은 음부로 내려가는 자들이고 자신이 지금 스올(Sheol)의 깊은 곳에 와 있다(잠 9:18)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본문들에 나타나는 스올(Sheol)을 죽음 이후의 세계로만 해석할 경우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스올(Sheol)이라는 고대의 개념은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Fox, 2000: 254). 이와 같이 의미에서 타락하는 사람들에 대한 잠언의 가르침을 살펴볼 때, 음녀를 찾아가는 사람이란 육체적인 때 이른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영역은 단순히 인간의 존재적 타락뿐 아니라 여호와와의 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머피(Murphy, 1966: 11)는 "죽음은 부패와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가치로부터의 단절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잠언 8:35-36에서 이 원리가 제시되고 있다.

나(지혜)를 얻는 사람은 삶(hayyim)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에게 죄를 짓는 자는 그 자신의 영혼에게 그릇 행하는 것이 되며,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죽음(mut)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아이크로드(Eichrodt, 1967: 361)는 삶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초기에 삶은 '행운'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다. 지금은 단순한 육체적 존재와 그로 인해 생기는 만족감을 넘어, 하나님과의 교제에

서 흘러나오는 내적인 마음의 만족 상태에서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행복을 말한다.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말하기를 삶은 지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35절에서 삶(hayyim)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과 같이, '그의 영혼에 그릇 행하는 것'은 '죽음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36절을 이끄는 역접접속사는 이 구절에서 삶(hayyim)과 죽음(mut)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즉 죽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는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어리석은 자의 도덕적 방탕을 가리키며 이는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결과를 낳게 한다.

### (3) 성취가 없는 상태

전 장에서 잠언이 말하는 진정한 삶은 심리학적, 물질적 영역에서의 성취를 의미하므로, 죽음은 그 반대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잠언 21:25-26은 이 점을 잘 포착하고 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은 그 자신을 죽이나니  
이는 그의 손이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느니라.

성취되지 못한 소망은 진정한 삶의 반대인 심리적 우울의 근원이 된다. 게으른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일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소원으로 인해 계속 좌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므로 자신이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Van Leeuwen, 1997: 112). 또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의

또 다른 예는 잠언 6:6-11이다. 여기서 게으른 자는 잠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물질적인 궁핍에 빠지게 된다. 적절한 물질적 소유(옷, 음식 등등)의 결핍으로 게으른 사람은 양식을 얻기 위한 근심 걱정으로 삶을 즐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반대로 의로운 사람은 필요를 채우고도 남아서 궁핍한 사람에게 나눠주기까지 한다. 그는 현재에도 풍족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나누어줄 때도 아무 계산 없이 나누어준다.

죽음(mut)은 생물학적, 육체적 혹은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지혜의 길을 벗어난 결과로 생긴 괴로움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즐거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길의 끝은 순간적으로는 발전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모든 기쁨의 반대인 때 이른 죽음(mut)인 것이다.

따라서 질적인 의미의 죽음은 지속적으로 행복을 위협하고, 편안한 삶을 박탈해가며, 지혜로운 행실의 도덕적 원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황과 또한 개인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모든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죽음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질적인 의미로서 죽음의 형태들은 지혜로운 행실로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다.

### 3. 평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확립하시므로 언약법에 의하여 불순종은 고난과 재앙을 초래하였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에 맞서는 삶은 개인적인 재앙으로 귀결된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이러한 재앙에 따른 죽음에 관하여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단절은 지금 현실의 삶과 반대되는 하나의 개념에 지나지 않았다. 잠언에서 이 영역은 결코 여호와와 대립하는 힘으로 언급된 적은 없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세계 질서 안에서 보응으로 사용하는 수단이었으며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육체적 죽음은 때 이르고 불행한 것으로만 거론되고 있으나 장수의 끝에 찾아오는 죽음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때 이른 죽음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기회를 앗아가는 까닭에 끔찍한 불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풍성한 삶(hayyim)과 대립 개념으로 죽음(mut)도 삶의 질적인 측면으로 의미가 폭넓게 쓰이고 있다. 다시 말해 잠언은 죽음이라는 용어를 곤경의 위협, 도덕적 지침이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결핍의 상태를 나타낸다. 잠언의 저자는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다. 만약 사람이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면 그 경고는 죽음이라는 커다란 위협에서 돌아서서 충만하고 만족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지침이 될 것이다.

## V. 결론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없는 현대인들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고대근동지방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에게 있어 이 주제는 단순한 존재나 육체적 생명이 없는 상태 이상으로 보다 폭넓게 이해되고 있었다. 그들은 삶과 죽음을 자연의 한 조각으로 보지 않았다.

고대 이집트인들과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삶이 육체적 건강과 장수, 물질적 풍요, 감정적 기쁨과 행복, 그리고 신의 보호를 기초로 한 안전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겼으나 그러한 삶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이집트인들은 삶이라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비인격적인 신적인 질서, 마아트(Maat)에 순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반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신들의 자의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로부터 은총을 얻고 그 신들은 그 댓가로 신들의 모임에서 자신을 중재해주는 식으로 생

각했다.

잠언에 나타나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삶과 죽음의 절대적, 질적 측면들에 관해 같은 시각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했다. 고대 근동문학과 잠언서의 비교를 통한 삶에 대한 세계관의 차이점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여호와와 우주를 지탱하는 유일한 존재이며 그의 창조된 질서는 그의 인격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여호와와 잠언서의 나타나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둘째, 한 사람이 여호와께 순종할 때(하나님을 경외함)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 만약 그가 지혜를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여호와는 그의 신적인 질서의 힘을 통하여, 보상의 의미로 그 사람에게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준다.

셋째,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단순한 존재 이상을 소망했다. 그들은 만족을 주는 삶의 방식을 추구했으며 이는 여호와가 자신에게 그 길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준다고 믿었다.

넷째, 이러한 만족은 무덤 너머의 삶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잠언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잠언에는 자살과 같은 현실도 피적인 삶의 추구가 나타나지 않는다. 삶은 절대적 의미에서, 질적인 의미에서 최대한 향유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삶이 언제나 질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그 자체로 충만한 삶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처럼, 죽음은 삶과 충돌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 근동문학과 잠언서의 비교를 통한 죽음에 대한 세계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대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생물학적 단절을 의미하지만, 질적인 의미에서는 여호와와의 교제 안에서 삶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건, 환경, 심지어 생각까지도 포함했다.



둘째, 그러므로 질적인 의미의 죽음은 여호와와의 교제를 버리고 의의 길을 벗어났을 때, 환란이나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 때, 지금의 삶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을 때를 말했다.

셋째, 이러한 육체적인 종말은 죽음이라는 폭넓은 범위의 중심 개념 중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잠언에서 제시된 지혜는 각각 죽음의 형태를 초래한 원인과 그 울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가지고 있던 삶과 죽음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언이 말하는 삶과 죽음은 선택의 문제이다. 즉 이 땅에서의 삶이 아주 만족스러울지 아니면 죽음의 길을 동행할 지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가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는 기본 원칙을 교훈하고 있다.

### 참고문헌

- Bailey, Lloyd R. Sr. (1979), *Biblical Perspectives on Deat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_\_\_\_ (1971), "Death as a Theological Problem in the Old Testament," *Pastoral Psychology*, 22 (November), 20-32.
- Botterweck, Johannes and Helmer, Ringgren, ed. (1980),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ranslated by John T. Willis,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 Breasted, James Henry (2002), *Development of Religion and Thought in Ancient Egypt*,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 Brueggemann, Walter (1972), "Life and Death in Tenth Century Israel,"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40 (March), 96-109.
- Bultmann, Rudolf K. (1964), *Society in Ancient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 Camino, Ricardo A. (1954), *Late Egyptian Miscellane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Cohen, A. (1945), *Proverbs Hebrew Text and English Translation wit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Hindhead Surrey: The Socino Press.
- \_\_\_\_\_ (1965), *A Basic Jewish Encyclopedia*, Hartford Conn.: Hartford House.
- Crawford, H. A. (1899), *Cri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Proverbs*,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 Crenshaw, James L. (1981), *Old Testament Wisdom*, Atlanta: John Knox Press.
- Dell, Katharine J. (2000), *Get Wisdom, Get Insight: An Introduction to Israel's Wisdom Literature*, Macon: Smith & Helwys
- Eichrodt, Walther (1967),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J. A. Baker tr.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Faucett, Laurence W. (1975), *Seeking the Wisdom Writings of Ancient Egypt*, San Diego: NP.
- Fox, Michael V. (2000), *Proverb 1-9*, Anchor Bible 18A, New York: Doubleday.
- Frankfort, Henri (1948), *Ancient Egyptian Religion*, New York: Harper and Row.
- Girdlestone, Robert B. (2006), *Synonyms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 Henry, John (2006), "The Form and Function of the Motive Clause in Proverbs 10-29" Ph.D. thesis. School of Religion in the Graduate College of the University of Iowa.
- Jacobsen, Thorkild (1976), *The Treasures of Darkness A History of Mesopotamian Relig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Johnson, Aubrey R. (1964), *The Vitality of the Individual in the Thought*

- of Ancient Israel*, Cardiff: University of Wales Press.
- Kaiser, Otto and Edward Lohse (1981), *Death and Life*, Nashville: Abingdon.
- Kennedy, David B. (2001), "A Comparison of the Theology Informing Proverbs and the Wisdom Literature of the Ancient Near East" Th.D. thesis,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Kidner, Derek. (1964), *The Proverb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VP.
- Kittel, Gerhard and Gerhard Friedrich, ed. (1964–1976),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eoffrey W. Bromiley tr. & ed.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 Lambert, W. G. (1960), *Babylonian Wisdom Literature*, Oxford: Clarendon Press.
- Martin–Achard, Robert (1960), *From Death to Life*, Translated by John Penney Smith, London: Oliver and Boyd.
- McDonald, Michael W. (2004), "The Theology of Reward in the Book of Proverbs" Th.D. thesis,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McKenzie, John (1965) *Dictionary of the Bible*, Milwaukee: The Bruce Publishing Co.
- Muirhead, Lewis A. (1998), *The Terms Life and Death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and Other Papers*, London: Andrew Melrose.
- Murphy, Stuart A. (1966), *The Religion Of Israe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derson, John (1954), *Israel Its Life and Culture*, London: Geoffrey Cumberlege.
- Pritchard, James B., ed. (1958), *The Ancient Near East and Pictur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75), *The Ancient Near Eas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Ringgren, Helmer (1980), *Relig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Roland, E. (1966), "The Kerygma of the Book of Proverbs," *Interpretation*, 20, 3-14.

Sutcliffe, Edmund F. (1946), *The Old Testament and the Future Life*, Barns Oates: Washbourne Ltd.

Van Leeuwen, R. C. (1997), *Proverbs*, The New Interpreter's Bible, Nashville: Abingdon.

Von Rad, Gerhard (1972), *Old Testament Theology*, D. M. G. Stalker tr. New York: Harper & Row.

\_\_\_\_\_ (1972), *Wisdom in Israel*, Nashville: Abingdon Press.

Whybray, R. N. (1972), *The Book of Proverbs*,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_\_\_\_\_ (1974), *The Intellectual Tradition in the Old Testament*, New York: Walter de Gruyter.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Life and Death in  
Ancient Near East Literature and Proverbs

Kyung Sil Lee (Taeshin University)

Modern man has never been more preoccupied with any topic than he has been with life and death. This was also true in the ancient Near East, but these subjects were understood much more broadly than mere existence and the lack of physical vitality. The early Egyptians and Mesopotamians considered life to include physical health and longevity, material sufficiency, emotional joy and happiness, and security based on divine protection, but they disagreed on the means of attaining it. Conformity to the impersonal divine order, *마아트*(Maat), was essential in order to be rewarded with life in Egypt, while the Mesopotamians had to please the arbitrary desires of the gods. The latter did this by attaining the good favor of his personal god who in turn would intercede for him before the great council of the gods. Israel's neighbors, therefore, believed that the good life was available to man and attainable if he lived correctly. Death, on the other hand, was the expected lot for mankind which could be manifested in the forms of premature mortality or sickness.

Ancient Israel shared the absolute and qualitative aspects of life and death, but disagreed on the means

by which one attained them. Just as life almost always included qualitative aspects which make it equivalent to fulness of life, death was known as a whole realm in conflict with life. In the absolute sense this meant biological cessation, but qualitatively it could represent events, circumstances, and even Perceptions which detract from one's ability to enjoy the riches of a life in communion with God. The authors of Proverbs mention absolute biological death only as premature, unhappy end of existence; that one would die of old age is accepted.

It is imperative for the twentieth century believer to understand the full concepts of life and death as ancient Israelite would, so that he might realize the temporal rewards which flow from God's good pleasure upon those who live righteously, and so that he might recognize the curse of death upon the wicked which manifests itself long before breath ceases.

Key Words: Life, Death, Amen-em-Opet, Ptah-Hotep,  
Gilgamesh Epic, Proverbs